

이번엔 '뿌리' 켈까?

국방부 10·27법난 진상조사

과거사진상규명위, 조계종에 자료요청 등 움직임 활발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27법난에 대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0·27 법난은 국회 5공특위에서 개괄적인 조사를 벌인 적인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하 법난진상규명위)는 4월 18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자료수집 등의 예비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부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14일 법난진상규명위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27

법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또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자원봉사자라도 적극적으로 동참 또는 협조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법난진상규명위는 요구사항을 통해 '10·27법난은 국가권력을 전횡한 역사적 범죄를 호도하기 위해 군부가 자행한 인권탄압이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반민족적·반민주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27법난을 최초 입안한 당사자와 배경, 피해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 종교계가운데 유독 불교계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만여 군경합동수사대가 대검과 실탄을 장전하고 전국 사찰에 난입, 스님들을 폭행하고 수백명을 연행한 사건이다.

이 때 조계종·천태종 주요 지도자와 사찰 주지 등 스님들이 불법감금,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0·27법난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배경과 원인, 피해상황 등은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울산에 불교방송 생긴다

방송위 허가추천키로, 추진위 6월 주파수 신청

울산에 불교방송이 생긴다. 방송위원회는 4월 18일 제18차 임시회의를 통해 불교방송이 신청한 불교 울산 FM 방송국에 대해 허가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울산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2004년 7월부터 울산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국 설립을 추진해왔다. 불교방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2004년 10월 6일, 2005년 2월 21일, 2005년 12월 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방송위원회에 허가 추천을 신청했으며, 18일 방송위원회 18차

임시회의에서 불교 울산 방송국의 허가 추천이 최종 결정됐다.

불교방송은 울산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정보통신부에 방송 주파수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를 얻는 대로 울산방송의 개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인구 비중이 76.2%로 전국 최고인 울산에는 현재 KBS, MBC, CBS, 극동방송 등 4개사 만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윤 국방 장관 스님 예방

윤광용 국방부장관(사진 왼쪽)이 4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윤 장관은 군종장교 파견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조계종은 군종장교 운영의 효율성 재고방안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에는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 부주지 계성 스님 등이 배석했다. 지관 스님은 해인사 고려대장경 편(모형)을 선물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서울절들 '손 잡아요'

서울사암련 준비위 가동

조계종 직할교구총회가 서울지역 사암련합회 결성이 추진한다. 4월 1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550년 제1차 교구총회(의장 지관)에서 사암련 결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사찰의 민원과 사회적 요구를 종단이 모두 대응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다"며 "일년에 두번 밖에 열리지 않는 교구총회 보다는 현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암련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서울 소재 비구니 사찰 주지스님 1인 등 3인을 준비위원장으로 사암련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열린우리당 "관람료 폐지 추진"

'5·31 선거용' 비난 여론

최근 당론으로 국립공원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꿔 사찰문화재 관람료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4월 21일 열린우리당 최고의위원회에서 "공원입장료는 그대로 두고 문화재 관람료만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문병호 의원은 16일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당

정책위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계종을 비롯 불교계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5·31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입장료와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폐지 할 경우 연간 400~500억 원이, 문화재 관람료만 폐지할 경우 약 200억 원 정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조용수 기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 회의

템플스테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안내·예약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한 '2006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1967명(내국인 1607명, 외국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인지했고 실제 방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잠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종합 안내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수요자들에게 템플스테이 정보를 전달하고 간편하게 예약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관광안내체계 및 예약시스템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템플스테이를 진행·안내할 가칭 '템플스테이 안내원'

제도를 각 사찰별로 도입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스님과의 대화, 참선 등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짧고 촉박한 일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았다. 따라서 기존 1박 2일 프로그램을 2박 3일, 3박 4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나 가족 대상 등 참가자별로 유연하

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별 차별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각 사찰 템플스테이 핵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높았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편했던 사항과 관련해 내국인들은 '개인 휴식시간 부족'을 들었고, 외국인들은 '이용객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꼽았다. 또 내국인들은 '스님과의 대화'를, 외국인들은 '참선'을 가장 만족스러워 했다. 향후 가장 즐기고 싶은 템플스테이 유형으로 내국인들은 '한국 역사문화와 관련된 템플스테이'를, 외국인들은 '한국의 자연경관과 관련된 템플스테이'를 선호했다.

남동우 기자

종합안내·예약정보체계 구축이 활성화 열쇠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박세일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등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중앙승가대 이사 전원 연임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 이사 전원 연임했다.

중앙승가대는 4월 18일 교내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총무부장 자승,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등 당연직 이사 3명과 종하·지하·법산 스님, 박완일 교수

등 추천직 이사 4명 등 이사 7명 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이사회 감사로 적인·혜초 스님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계을을 입각한 실천행'을 주제로 특강했다.

남동우 기자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강연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국가발전과 불교의 역할

우리는 '일(勞動):家事노동과직업노동'을 통해 성불한다
- 집안 일과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

◎강 사 : 박세일 / 서울대 교수 / 前국회의원
◎일 시 : 2550(2006)년 5월 5일 10시 30분
◎장 소 :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 대웅전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우456-893)
전 화 | (031) 676-8700 전 송 | (031) 676-8704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E-mail | dopiansa@kornet.net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주지 송암지원 謹白

5월 '부처님오신날' 과 '가정의달' 을
맞이하여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책!

救國救世-더불어 살아야 할 삶[共同體]을 위한 불교적 패러다임[緣起와 中道]을 찾아서 1

-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21세기 신가정 만들기

우리의 가정도 21세기형으로 리모델링 하자.
여기 신가정 전문가 열분의 도움을 받아
지난 세기의 낡은 가정을 확 뜯어 고쳐 행복을 찾자.

글 김중서 외 신국판 360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도피안사